

2018 에든버러 축제 인턴십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 보고

The Edinburgh Fringe 2018 Festival Korean Student Internship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1. 인턴십 목표

- 예술축제에 있어 세계 최대 규모와 시장 기능을 가진 에든버러에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운영직원이 되어 무대안팎의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지원해 우리의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킬과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기회.
- 창조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현재 대다수 예술전공 학생들이 꿈꾸는 제한적인 직업 세계로부터 프로모터, 마케터, 평론가, 예술경영자 등으로 시야 확장 기능.
- 극장 업무 외적인 시간의 활용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전반적인 모습 모니터, 임시극장 운영방식, 성공하는 공연들의 특징, 각종 공개 세미나 등 경험 기대.
- 무엇보다 이러한 축제에서 우리 공연 시장의 경쟁력을 돌아보고 향후 학생들이 같은 축제에 예술가로 참가할 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외 진출 효과 기대.

2. 참석 대상

- 연극학, 연기, 예술경영학 전공자 10명(총 11명 합격자 중 1명 비자 확보 실패로 자진 탈락)

3. 일시·장소·주요 프로그램 내용

일자	장소	내용
6.5~	영국-한국	파일럿 사업 계획서, 인턴 공지, 인터뷰, 선발 작업
7.27	런던	런던 도착
7.28	주영한국문화원	오전 워크숍, 오후 에든버러 도착, 숙소 배정
7.29	에든버러	휴무(극장 및 도시투어)
7.30~8.1		일부 휴무 및 일부 부분별 업무 시작
8.3~30		총 10개 작품 정도에서 홍보, 매표소, 공연 진행, 제작 지원, 식음료 서비스팀 등에서 활동. 축제 후 작품 철거 작업
8.25		Meet the Venues Training Bring a Show to Edinburgh Training Cultural Trip at the coast of Scotland 일부 학생들만 참가
8.31		인턴 종료 후 일부 학생들 바로 귀국. 일부는 런던에서 자유 시간

4. 문제점

• 극장 측이나 참가자 모두 처음 시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해 극장, KNUA, KCC, 참가 학생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프로그램을 출발 전 공지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학생들 초기 경험의 표면적 만족도에 영향)

• “인턴십”이라는 용어가 주는 높은 기대: 참가자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상황에 맞게 적극 대처하기보다 확고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인솔자의 요청에 따라 전공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완벽히 학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높아 인턴 업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약 6주 안에 모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약서, 비용 지급, 유니폼 등등 마감일을 확정하지 못함에서 받았던 과정의 모호함이 지적된다.

• 출발 시점의 오류: 극장 측에서는 출발부터 동일한 시점에 교육받고 동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향후 축제를 협력해 이끌어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가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정이 이미 시작된 중간에 전체 조직의 일원으로 투입된(7월 17일이 아닌 30일 합류) 바 처음부터 10명 모두가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고루 섞여 숙소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리 교육을 끝내고 배치된 이들과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조화로운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 극장 내 매니지먼트의 리더십 부재(업무 지시의 우선 순위, 명확성, 책임감 부족)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축제 기간 대부분의 극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흥적(예상 밖)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예방이 쉽지 않다. 특히 축제의 특성상 한 가지 문제가 뒤에 연이은 공연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턴 참가자들의 상황대처의 어려움이 업무 스트레스로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 참가자 개개인의 전공 또는 전문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업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배우, 경영, 연극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업무가 주어졌다는 참가자들의 불만은 에든버러 축제 인턴십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정립해 이해를 바탕으로 모집해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 한국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있던 공연 제작과 극장 운영의 모습을 프린지와 대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의 충돌이 여과 없이 나타났다. (프린지 환경은 영국 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프린지만의 운영 방식이 있는데 이 같은 문화적 충격을 빨리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참가자에게는 큰 과제였을 것이다.)

• 참가자 10명이 이번 인턴십을 대하는 생각의 차이로 일어난 내부적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개인의 성격, 성향, 이해도의 차이로 짧은 기간이지만 축제 현장에서 HR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으나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리포트에서는 축제의 운영방식, 다양한 공연 제작 및 상연, 네트워크의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에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일부는 2019년에 작품을 가지고 예술가로 다시 찾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는 프린지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의 수많은 유사 축제와는 달리 조직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개별 극장 그룹들이 직접 작품을 선정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 특정 극장그룹의 운영 방식은 축제 전체를 평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기대를 갖고 참가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지 못한 극장 운영 방식이 드러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잘못되고 있는 모습 또한 학습적 효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극장 그룹들과 연계하여 운영 방식을 서로 비교·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커스터마이징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턴십의 방향, 사전 워크숍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목표에 걸맞는 밝은 미래가 보일 것이다.

※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국 과정에 도움을 주신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사무국과 숙소, 식비, 항공권을 지원해 주었던 극장 측, 그리고 주영 한국문화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